

# 장수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한 활동 돌입

### 독립선언서 낭독·만세삼창 등 3·1운동기념공원 준공식과 함께 진행

장수군은 1일 오전 11시 산서면 소재 장수군3·1운동기념공원에서 독립운동가 자녀 및 한국회 군의원, 3.1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수군3·1운동기념공원 준공식과 함께 진행된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행사규모를 최소화해 진행했다.

장영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100여 년전, 아프리카 소중환 그날의 역사를 정립하고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의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더 밝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1일 장수군 산서면 3.1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장영수 군수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한편, 장수군은 독립운동가의 보존에 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2020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명절과 광복절 전후로 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주민공청회 등 열어

무주군이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앞두고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과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이 도시재생대학과 공청회 마련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특성상 산뜻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한 차원 높은 재생사업을 발굴, 결론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6회차 과정을 끝으로 수료식을 개최해 총 20명여 명의 주민이 수료를 마쳤다.

심화과정은 지난 5일부터 4주간 무주읍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시재생 개념과 실현가능한 핵심사업 발굴 및 무주읍내 현안문제 조사 등을 위해 현장교육을 포함한 외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됐다.

마지막 수업은 최종 조별 발표로 진행됐으며, 주거환경, 일자리, 관광·상권, 교육문화 등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발열체크와 참여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무주읍은 2021년 8월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며, 12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나온 사업 아이디어와 앞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들과의 여러차례 사업 추진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

을 수립 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이날 오전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무주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하기 위해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무주군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번 주민공청회에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철모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 전북연구원 오병록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무주군에 활력을 일으키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주요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무주읍 도시재생 사업 추진 여건변화 반영과 무주읍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을 50만㎡ 1개소를 2개소를 분할해 우선순위 평가 재실시 등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다.

농촌활력과 김영중 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2021년 공모 신청 예정인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마을활동가 양성 및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 등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자동차세 3월 연납 7.5% 할인혜택 제공

장수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자동차세 1년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준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 없다. 단,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 처리가 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 백운면-작은도서관 동네복지 추진 공동토론회

진안군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와 흰구름 작은도서관(관장 최영운)이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동네복지 추진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청년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고 고령 독거노인 가구의 사소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청년 맥가이버', '강설 시 골목길 제설대책 등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와 작은도서관은 동네복지와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지역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호 소통 및 협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에서 13년 넘게 매일 발행하고 있는 '흰구름 백운' 소식지 2월호에는 박희곤 위원장의 인터뷰와 동네복지사업 추진계획을 게재해 동네복지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매일 사업의 추진사항과 후원금 기부자인 심마니 참여현황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농촌건축 아카데미 개최

### 각 분야 전문가 참석 온라인 생중계

무주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촌건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주최·주관하고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지역 활력을 되찾을 계기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황인홍 군수와 운동진 농업축산식품부 국장을 비롯한 발제·토론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현장은 줌으로 연결해 온라인 생중계해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군수는 "오늘 이 자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무주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무주형 뉴딜 전략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우리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결실이 이 시간을 통해 배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 도시재생센터 김혜천 센터장이 '무주형 뉴딜과 무주 지역개발 방향'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펼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변경화 지역활력담당관이 '지역균형 뉴딜과 우리의 과제'를 발표했으며, 기용건축건축사사무소 김병욱 대표는 '무주의 건축자산, 정기용 건축'을,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민동규 전문위원은 '지역관광과 콘텐츠 발굴'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김홍기 교수는 해외사례로 '온천마을에서 마을경영을 배우다'란 주제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김승근 교수를 좌장으로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도현화 교수,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최일섭 센터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인국 지역개발부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전성만 센터장,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이창우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농촌건축을 통한 공간 조성'과 '마을경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참여했던 무주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최일섭 센터장은 "무주의 자원과 자산을 발굴하고 재해석·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계기, 전문가들로부터 지문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무주가 하루빨리 침체를 극복하고 활력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

진안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유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등급기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청대상은 총중량 3.5톤미만, 3.5톤 이상, 대형트럭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원액이 각각 최대 300만원, 440~3,000만원, 4,000만원 등 다르게 적용되고,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에

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은 3월 12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기환경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찾아가는 노무·법무 상담 진행

무주군은 3월부터 찾아가는 노무 & 법무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법무 분야 전문 공무원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노무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따른 노무관리와 ▲노사분쟁 해결방안 및 사용자 부담 노동행위 사전예방, ▲사회(4대)보험 관리 상황 등을, 기획실 법무팀에서는 ▲생활 속 법률관계, ▲민·형사상 법적 문제 해결방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관계 등을 상담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과 함께 진행(오전 10시~12시)될 예정으로 3월에는 무풍면(3.23.)과 설천면(3.26.), 4월에는 부남면(4.23.)과 안성면(4.26.), 5월에는 적상면(5.25.)과 무주읍(5.26.), 6월에는 무풍면(6.23.)과 설천면(6.28.)에서 열린다. 7월에는 부남면(7.23.)과 안성면(7.26.), 8월에는 적상면(8.25.)과 무주읍(8.26.), 9월에는 무풍면(9.17.)과 설천면(9.27.), 10월에는 안성면(10.25.)과 무주읍(10.26.), 11월에는 무풍면(11.23.)과 적상면(11.25.), 12월에는 안성면(12.24.)과 설천면(12.27.)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